

## 수석/보좌관회의

제가 대통령되고 나서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키게 된다는 것이 변화입니다. 아마도 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의미에선 뻑뻑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.

사법연수원 시절에 판사가 되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때 연수원 교수들과 외부강사들이 있었는데 외부강사들이 대부분 판사들이었고, ‘땡’ 하면 오셨습니다. 강의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문장이 어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멈췄습니다. 그때 저는 “저렇게 뻑뻑해서 어떻게 살겠나.” 싶었습니다.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, 회의 시작하겠습니다.